

# 3 갈뱅의 인간 이해와 하나님의 형상

배경식 / 한일장신대학교

## 서 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 자신에 관한 물음으로 귀결된다. 일반적으로 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게 하기 위해 나 자신에 대해 대충 설명할 수 있다. “내 이름은 아무개이며, 성장 배경과 가족관계는 어떠하며,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정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묻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나의 혈통이나 직업, 신분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진정한 자연적 본성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 현재 이 땅에 거하며 살고 있는 ‘전인적인 인간으로서의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인간의 이성애 비추어서 다른 피조물과 논리적으로 비교하여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답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다.

인류가 이 땅에 등장한 이래로 사람들은 지금까지 줄곧 이런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을 보아도 인간은 아직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은 인간 본질의 문제이면서도 모순이기도 하다. 인간이 이런 물음을 자신에게 던지면서도 그 스스로 대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모순이며, 이 모순은 인간 스스로에게 인간이 신비적인 존재임을 입증해 주기도 한다.

인간은 인간 자신에게 최대의 신비이기도 하다. “아침에는 네 발로, 낮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이나?”라는 스피크스의 물음에 대해 “인간이다.”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인간이 무엇이나?”라고 묻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그 이유는 물어보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같기 때문이다.<sup>1)</sup>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비교해서 말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유약한 존재, 그리고 종교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행동들에 기초하여 내린 결론들이다.

갈뱅은 인간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하며, 그렇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고상하게 입혀 주신 그 존엄으로 자신의 창조주를 찬미하며 당연한 감사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sup>2)</sup>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말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갈뱅의 인문주의적 교육과 연관을 갖는 성경적 인간관이다. 그는 인간에 대한 이중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 창조 시

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순수함과 거룩성을 가진 원래적 인간과 아담의 타락 후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연인이다.<sup>3)</sup>

이러한 인간 이해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본 논문이 추구하는 바는 갈뱅의 「기독교강요」(1559)와 주석을 중심으로 첫 사람 아담인 인간에 대하여 무엇이 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아담이 범죄 이후 갖게 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 본성에 관한 언급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인간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묻고 답하는 것이다. 인간에 관한 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칼빈학회에서의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1. 한국에서의 선행연구

한국에서 갈뱅의 인간론에 관한 연구의 시작은 1985년 이수영의 “갈뱅의 인간론”<sup>4)</sup>이다. 이 논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의 인문주의자들의 인간관과 종교개혁자들의 인간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자연적 인간관’이 서술된다. 이는 아담의 범죄 이후 온 인류가 갖는 원죄에 의해 최악에 빠진 인간의 본성을 말한다.

한국칼빈학회지를 통해 소개된 ‘갈뱅의 인간론’에 대해서는 1998년 칼빈신학 해설에서의 “인간론”이 있다. 이 논문은 ‘창조의 빛에서 본 인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논리 전개를 했다.<sup>5)</sup> 그 내용으로는 인간의 완전창조, 영혼을 가진

1) 참조 : J. Moltmann, *Mensch*, Christliche Anthropologie in den Konflikten der Gegenwart, Themen der Theologie, hrsg. von H. J. Schultz, Bd. 11, 1971, S. 12 : 인간 자신이 질문하는 자(der Fragende)인 동시에 질문된 자(der Befragte), 자기 자신을 질문하는 자(der Sich-Fragende)이다. 그가 질문하는 자인 동시에 질문된 자라면 그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혹은 타인이 자기에게 주도록 하는 모든 답변들이 그에게 불완전하며 그에게 다시금 질문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2) 장 갈뱅,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서울 : 도서출판 경건, 2010), p. 30. 인간은 자신의 탁월한 본성을 신뢰하고 그것을 존속하지 못하고 주님 밖에서 자기 관찰을 해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들을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담의 씨로부터 유래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육으로부터 육으로 태어나 비록 우리의 몸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육 이외의 어떤 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수영, 「개혁신학과 경건」(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pp. 120f. 갈뱅은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당시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연적 존엄성과 위대성을 예찬하고 고양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갈뱅은 성경의 증거에 의존하여 인간의 어둡고 비참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한다.

4) 이수영, 「갈뱅의 인간론,」 「빛과 소금」(서울 : 두란노, 1985. 5).

5) 이오갑, 「인간론,」 「갈뱅신학해설」(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pp. 154f. 이오갑 교수는 이 논문에서 갈뱅의 인간학을 다룬 자신의 박사학위논문과 함께 연구물들을 소개한다. Ou-Kab Lee, *L'anthropologie de Jean Calvin-l'homme dans la tension bi-polaire entre le deus maiestatis et le deus nobiscum*, IPT(Montpellier) ; 1992, T.-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London : Lutterworth Press, 1952) ; P.-W. Pruyser, "Calvin's view of Man : a psychological commentary," in *Theology*

인간, 자유의지, 하나님 형상과 타락, 회복, 피조물 인간 등을 다루면서 인간 이해를 '부정을 내포한 긍정적 인간'으로 보았다. 현실적인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이 논문에서 갈뱅의 인간학은 이원론적인 것을 극복하고 성경적이며 헤브라이즘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과 이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통전적인 면에서의 인간의 변화와 구원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의 인간관은 인류애적이며 보편적인 시야와 관대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인간 개인 모두가 고귀한 존재임을 인지하는 것이 미움과 분열, 그리고 갈등과 대립, 빈부 간의 격차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한철하의 "Calvin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논문<sup>6)</sup>과 「칼빈연구 제4집」에서의 "갈뱅의 인간론 : 「기독교강요」(1559)를 중심으로"<sup>7)</sup>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최근의 「칼빈연구 제8집」에 "갈뱅 인간론에서 신자의 정체성 이해와 그 신학적 의미"<sup>8)</sup>라는 논문이 있다. 그 외에 칭의론과 성화론, 구원론에

*Today*, 1969, No. 1; J.-D. Doglass, "The Image of God in Humanity: A Comparison of Calvin's Teaching in 1536 and 1559," in Papers from the 1986 International Calvin Symposium McGill University; M.-P. Engel, *John Calvin's Perspectival Anthropology*(Atlanta: Scholars Press, 1988); G.-Ph. Widmer, "La dramatique de l'image de Dieu chez Calvin," in *Humain l'image de Dieu*, éd., par P. Bühler(Geneve, Labor et Fides, 1989); 이오갑, "Deus maiestatis와 Deus nobiscum 사이의 양극 긴장 속에 있는 인간-갈뱅의 인간학적 원리," 「신학논총」 제2집(연세대 신과대 한국그리스도교문화연구소, 1996). 갈뱅의 인간론에 관한 그 이외의 책들은 이수영, "인간론," 「교리 교육지침서」(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3); André Bieler,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 「갈뱅의 사회적 휴머니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최윤배, "G. C. Berkouwer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 등이다.

6)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pp. 203f. 이 책에서는 인간의 구원론을 다루면서 '오로지 믿음으로'라는 개신교의 신학이 '행함이 따르는 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역설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Calvin과 Wesley의 신학을 구원론적 관점에서 연결시키려 하는 점이다.

7) 김선희, "갈뱅의 인간론 : 「기독교강요」(1559)를 중심으로," 「칼빈연구 제4집」(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pp. 95f. 이 논문에서는 인간을 창조와 구원사적으로 논하였다. 목차를 보면 먼저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다룬 후 하나님의 형상을 서술하였다. 이어서 타락한 인간과 회복된 인간이다.

8) 김요셉, "갈뱅 인간론에서 신자의 정체성 이해와 그 신학적 의미"(서울: 한국장로교출판

사, 2010), pp. 7f. 이 논문은 신자란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시작한다. 신자의 불완전성은 그들 안에 남아 있는 죄 때문이며 그로 인해 내면적 갈등을 갖는다. 옛사람과 새사람 두 본성에서 갈등한다.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이다.

## 2. 자연인의 본성과 무지함

사람들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마음속으로 "그런 걸 어떻게 아는가? 아니 그걸 알아 무엇 하려는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인간적 요인이 된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관해 심각한 고민을 했던 것 같다. 그의 대표적인 고백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4-25)에서 잘 보인다. 여기에서 바울은 인간을 마음과 육신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한 인간 안에서 마음과 육신이 각기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이중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며, 그것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 본성으로서의 자연적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좋은 품성이 아니라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최악에 빠져 부패한 인간을 말한다. 자연적 인간 본성에 대해 종교개혁 이전의 인문주의자들과 갈뱅의 차이는 현저하게 다르다. "이 두 인간 이해의 근본적인 차이는 갈뱅이 어디까지나 성경의 증거에 의존하면서 자연적 인간의 어둡고 비참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데 반해, 인문주의자는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범죄와 그 결과를 고양시키는 데 있다."<sup>9)</sup>

갈뱅이 보는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자연적 인간관은 매우 부정적이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깊이 빠지게 된 비참한 멸망 때문에 인간은 무지와

9) 이수영, "갈뱅의 인간론," 「빛과 소금」(서울: 두란노, 1985. 5.), p. 118.

공허, 궁핍, 무력, 그리고 더욱더 타락과 부패를 느낀다는 것이다.<sup>10)</sup> 이 느낌은 하나의 영적인 갈급함이 되어서 지혜의 참된 빛, 건전한 미덕, 풍성한 선, 의와 순력함이 오직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갈뱅의 신학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며 은총의 신학으로 이끄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죄성과 타락상에 대한 철저한 인식”<sup>11)</sup>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신 중심적 신학으로서의 갈뱅의 신학이 이제 은총의 신학으로서 나타나는 논리를 우리는 그의 인간관과 그 위에 기초한 그의 구원관에서 명백히 보게 된다. 앞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강조가 갈뱅 사상의 전면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거니와 이 전면은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라는 이면을 갖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sup>12)</sup>

갈뱅에게서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는 마치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과 같이 서로 선후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채워 준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의 우리의 모습을 아는 것과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비참한 파멸에서 부패하고 기형(畸形)이 된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창조를 이해하는 것이 거의 이득이 없을 것이다.”<sup>13)</sup> 사실 우리는 자연적인 인간,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

21세기의 순교자로 추앙을 받는 본회퍼도 “나는 누구인가?”<sup>14)</sup>라는 자작시에

10) *Inst.*, I, i, 1, p. 63.

11) 이수영, “갈뱅신학의 특징과 한국신학,” 한국성서학연구소 편, 「한국적 신학의 모색」, 성서학연구소 연구위원 논집(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5), pp. 195ff.

12) 위의 책.

13) 갈뱅, 「영한 기독교강요」(서울: 성문, 1993), I, 15, 1, p. 357. 이하 *Inst.*, I, xv, 1, p. 357로 표기함.

14) 디트리히 본회퍼, 「저항과 복종」(*Widerstand und Ergebung*), 「옥중서간」, 손규태, 정지연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pp. 653f. 본회퍼의 시는 신앙고백과 자백의 시이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지를 말해 준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는 아는가?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인가? 너는 누구인지를 말하라. 여기에서 ‘누구’에 대한 것은 초월에 대한 물음이며 ‘어떻게’에 대한 것은 내재에 대한 물음이다. 우

서 자신에게서 보이는 인간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가변적인 존재임을 읊조린다. 그 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라고 묻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반문한다. 이 시의 결론 부분에서 그는 말하기를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 나 자신은 남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며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라 나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라는 신앙고백적인 결론이다. 내가 아는 내 자신은 나라는 장에 갇힌 나를 부분적으로 알 뿐임을 고백하는 표현이다.

한스 발터 볼프(Hans Walter Wolff)는 그의 책 「구약성서의 인간학」(*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에서 인간 존재를 갈망하는 생영인 인간(네페쉬), 몰락할 인간(바사르), 전권을 부여 받은 인간(루아흐), 이성적인 인간(렘, 압)으로 구분하였다.<sup>15)</sup> 언어를 통해 보이는 인간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표현들이다. 여기에서 보이는 인간의 사명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동료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지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데, 그 역시 인간 자신인 “내가 누구인가?”(Wer bin ich?)를 근본적으로 설명해 줄 어떤 존재를 만나야 된다는 입장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전제한 후 역사로서의 인간과 영과 육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서술하기 위해 성서적이며 신학적인 논쟁을 전개하고 있기도 한다.<sup>16)</sup>

### 3. 인간 이해의 틀

갈뱅은 인간 본성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기 전에 먼저 흠과 진흙(창 2:7, 8:27)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흠집에 사는 존재임을 강조한다.<sup>17)</sup> 그가

리는 자신을 전보다 더 모르고 이것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인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15) 한스 발터 볼프, 문희석 옮김, 「구약성서의 인간학」, 신학총서 제10권/역사신학 구약편 No. 4(분도출판사, 1976), pp. 9f.

16) 김균진, 「기독교교직신학」(서울: 연세대출판부, 1986), p. 23f.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창조는 세 개의 단계 과정을 갖는다. 그의 몸이 땅의 먼지로 형성되고 거기에 생기를 갖는 영이 부여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 위에 영원성을 갖는 하나님의 형상을 각인시켜 주셨다.<sup>18)</sup>

### 1)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에서 보인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충분한 의를 가진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존재에 관해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구절은 창세기 1:26~27이다.<sup>19)</sup>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창세기 1:26에는 히브리어 첼렘(*צלם*)과 데무트(*דמוּת*)라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들은 '형상'과 '모양'으로 번역되었다. 형상이란 단어는 27절에서 두 번 되풀이되었다. 창세기 5:1~2에서 사용된 형상이라는 단어는 데무트이다. 창세기 9:6에 살인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이 진술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도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sup>20)</sup>

칼뱅은 히브리어의 언어 사용법을 들어 형상(image)과 모양(likeness)을 구별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에서 같은 것을 반복할 때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관습적이다. 이어서 두 번째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덧붙인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에서 '하

나님의 모양을 따라'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한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급이 없이 모양을 넣었다."<sup>21)</sup>

신약에서는 두 구절이 인간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1:17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에이콘(*εἰκών*)이다. 야고보 기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호모이오시스, *ὁμοιωσις*)대로 지음을 받았음에 근거하여 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그 이외에 신약성경에서 인간이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보게 된다(롬 8:29; 고후 3:18; 엡 4:23-24; 골 3:10).

성서의 창조 이야기에서 보이는 인간은 우주의 우연한 합성물이나 우연한 진화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배려와 정교한 솜씨로 창조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의 하나이면서도 가장 빼어나고 뛰어난 피조물로 등장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모습)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

칼뱅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자기 형상대로라는 표현이 모호한 까닭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 모양대로'라는 문구를 덧붙였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속에 새겨 놓은 표시에 의해 형상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과 같다.<sup>22)</sup>

칼뱅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영혼과 관련된 완전성이라고 본다. 그 완전성은 천사들과 같아지는 것이다(마 22:30). "하나님의

17) *Inst.*, I, xv, 1, p. 359.

18) Calvin, *Old Testament Commentaries, Genesis Vol. I*(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73), p. 112.

19)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이다.

20) 배경식, 「창조와 신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p. 73.

21) 위의 책, p. 94. *Inst.*, I, xv, 3, pp. 365ff. 모양이라는 말은 설명을 위해 첨가된 사실을 제외하면 차이점이 없다. 히브리어의 반복법인 한 가지를 표현하기 위해 두 낱말이 사용된다.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린다는 사실 자체에는 전혀 모호한 점이 없다. *zelem* 형상을 영혼의 본체에, *demuth* 모양을 영혼의 속성에 적용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과 같다.

22) *Inst.*, I, xv, 3, p. 367.

형상이 우선적으로 깃들여 있는 곳은 정신과 마음, 또는 영혼과 영혼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그 광채가 얼마만큼이라도 빛나지 않은 곳은 없었다.<sup>23)</sup>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단지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이해하는 표현이다. 인간의 구원이 전인적임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견해로 요약될 수 있다. 1) 이성이나 영혼을 가진 내면적 본질, 2) 외형적 모습으로서 외면적 본질, 3) 통치의 기능, 4) 관계의 기능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을 내면과 외면으로 나누거나 본질과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한 인간을 내면-외면으로서 분리할 수 없으며, 인간의 본질과 기능을 나눌 수 없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결코 쪼갤 수 없는 전인(全人)이다. 인간은 내면(정신)과 외면(육체)의 통합체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새롭게 됨(골 3:10)과 순결한 의와 거룩함이다(엡 4:24).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고후 3:18). 이에 대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고전 11:7)이라고 하는 바울의 진술은 부부 간의 관계에서 보이는 혼인의 질서(ad ordinem conjugalem)에 제한된 것이다.<sup>24)</sup>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순결함과 거룩함과 다른 양심에 근거한 현재의 생활과 연관이 있다. 남자에게 주어진 권위로서의 자질을 말한다. 계속 되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부분에서 여자는 남자의 동반자와 협조자로 만드셔서 머리인 남자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잠언 12:4에 의하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갈뱅이 말하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생을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본다.

23) 위의 책.

24)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trans., John W. Fraster(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1973), p. 232.

## 2) 부패한 인간 자연인

갈뱅은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 본래 받은 것을 상실하고 전 인류의 파멸이 초래되었다.”<sup>25)</sup>라고 한다. 본래 아담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결과로 인해 지은 최초의 죄를 원죄라고 말하며, 유전적 부패로 인한 그 죄로 인해 아담이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혼의 죽음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아담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은 이 하늘과 땅의 전체 자연 질서를 그르쳐 놓았으며, 그 반역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파멸되었다는 것이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고 인류에게 무서운 형벌을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첫 사람 아담이 뱀의 꾀에 빠져 외형적으로 보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실과’(창 3:6)를 먹은 무절제와 탐욕의 죄인가?

갈뱅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지하심으로 순종 여부를 시험하셨다는 것이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의 영적 생활은 창조주 하나님께 연합되어 사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아담은 이러한 계약에 의해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가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는 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 받는다는 약속과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를 따 먹으면 죽는다는 무서운 위협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다.”<sup>26)</sup>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은 타락의 시작이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약속한 계약의 파괴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에 귀를 기울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외심을 저버리는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경시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교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 안에 빛났던 인간적 속성의 완전한 탁월성이지만, 후에 몹시 손상되고 거의 도말되어서 혼란되고 부패된 것만이 남게 되었다.”<sup>27)</sup> 이로

25) *Inst.*, II. i. 4, p. 15.

26) *Inst.*, II. i. 4, p. 17.

인해 인간은 영혼의 단절과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며 나아가서 온 인류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허무한 데 굴복하며, 형벌을 받는 우주적인 죄악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참조, 롬 8 : 18-25). 피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 온 인류와 피조세계까지 파급된 연대성을 말하는 것이다.

갈뱅은 이를 피조물의 의인화(κατά προσωποποίηση)라고 표현하였다. “바울은 의인화를 통해 세계의 모든 부분들에 감정이 주어졌다고 보았고, 그것은 우리가 보는 세계의 불확실한 파멸에서 더 높은 경지에 이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무지함에 의해 더 수치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sup>27)</sup>라고 말한다.

인간 영혼의 단절과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온 인류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허무한 데 굴복하는 형벌의 모습은 어떠할까? 갈뱅은 이를 마치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받으며 부르짖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조물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 허무한 데 굴복하며 또한 이 허무한 데서 자유를 갖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여인이 아기를 낳기까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과 같다.”<sup>28)</sup>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잃는 것은 지혜와 미덕, 거룩함, 의, 그리고 진리 등과 같은 것이다. 대신 받는 것은 심판의 요소들인 악질 전염병, 맹목, 허약, 허영, 불손, 불의 등으로 이것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전체까지 받아 비참한 불행에 빠지게 된다.<sup>30)</sup>

인간의 원죄에 대한 것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논쟁한 인간의 자유의지 사용과 죄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 논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과연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조화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조화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하는가? 그 결과로 거듭난 자의 의지가 선의 방향으로 참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본성적 선을 강조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죄는 유전(propagation)이 아니라 모방(imitation)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sup>31)</sup>

갈뱅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원죄는 모방이 아니라 원죄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신구약성경의 증거로는 다윗이 말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 : 5)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요 3 : 6)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인간은 누구나 아담 안에서 부패된 성품인 죄악의 씨를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은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그것을 이루는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교황주의자들은 어리석게도 육을 감각적인 것에 제한시켰다.”<sup>32)</sup>

육을 감각적인 것에 제한시키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결론이다. 학문이 발달하고 인간의 질적인 삶이 좋아졌을 때 과연 인간은 그가 바라던 행복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답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갈뱅은 그 이유를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깊이 빠지게 된 비참한 멸망 때문에”<sup>33)</sup>라고 한다. 이

27) *Inst.*, I. xv. 4, p. 371.

28)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 trans., by R. Mackenzie(Michigan : WM. B. Eerdmans Pub. Co., 1973), p. 173.

29) 위의 책, p. 174.

30) *Inst.*, II. i. 5, p. 19.

31) J. L. 니이브, O. W. 헤이크, 「기독교교리사」, 서남동 역(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7), pp. 283f. 펠라기우스가 생각하는 은총은 인간의 영적 능력에 미치는 하나님의 창조적 세력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의 이성을 개발시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은총은 절대적 힘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인간의 선택과 행위를 돕는 힘에 지나지 않는다.

32)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art One 1-10*, trans., by T. H. L. Parker(Michigan : WM. B. Eerdmans Pub. Co., 1973), p. 66.

33) *Inst.*, I. i. xxx, p. 63. 아담의 범죄와 비참한 멸망이라는 것은 칼빈주의가 말하는 전적 타락이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악은 인간의 영혼과 생활의 모든 영역까지 스며들어 있다. 사람은 선한 것을 단 한 가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자연인이 갖는 한계이다. 참조 : 배경식, 「칼빈의 참된 계시의 신학」, 「칼빈신학 해설」(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pp. 85f. 에드윈 팔머, 「칼빈주의 5대 교리」, 박일만 역(서울 : 성광출판사, 1991), p. 9.

것은 비관주의적 세계관(pessimistische Weltanschauung)의 하나로 인간 중심으로 발전하는 세계의 발전과 현상에 대해 기대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소망을 두는 세계관을 지칭한다.

육이 영에 거슬러 건전한 것이 부패되면 바른 것이 구부러지고,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고, 순수한 것이 오염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성품의 모든 것이 부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에 거하면 인간의 이해와 이성이 부패한다. 그 이유는 모든 육적인 마음의 성향이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이다. 육은 이렇게 거듭나기까지 생명의 문이 닫혀 있다.

### 3) 그리스도와의 연합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로서 전인적임을 살피보았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계약을 어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파괴되어 잔재만 남아 있어 인간은 마치 죄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비참하고 처절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는가? 아니면 자유의 일부만이 남아 그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인간에게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선과 자유를 동경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와의 합일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갈뱅은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노예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성적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종교적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 (1) 이성적 존재

갈뱅은 은사와 이성을 구별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한 절을 할애한다. “인간의 초자연적인 은사는 박탈당하고 자연적 은사는 부패되었으나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이성은 남아 있다.”<sup>34)</sup>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주어진 하나

34) *Inst.*, II. ii. 12, p. 67.

님의 형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초자연적인 은사는 천상생활과 영생복락을 얻는 의와 신앙의 빛을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성결함과 의를 위한 열심 등이다. 자연적 은사는 정신의 건전함과 마음의 정직을 말한다.

갈뱅은 이성을 선과 악을 분간하는 능력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성이 완전히 말소되지는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부패하고 약화되어 기형적인 잔재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고 보전된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떠한 상태였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의 빛을 주셔서 그것으로 선과 악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간하도록 하였고, 이성의 빛을 주셔서 그것의 안내를 받아 추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구분하도록 하셨다.”<sup>35)</sup> 이것을 철학자들은 지도력(τὸ ἡγεμονικόν)이라고 부른다.

갈뱅은 하나님께서 이 지도력에 의지를 결합시켰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선택은 이 의지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고 본다. 지도력과 의지와 통제력을 갖춘 인간은 얼마나 탁월한 존재였을까? 그의 이성과 오성, 분별력과 판단력은 지상에서 뛰어나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첫 사람 아담이 동물들에게 각기 이름을 주는 것(창 2: 19-20)에서 지배자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었다. 여기에 자유의지와 선택이 추가되어 의지가 이성의 안내를 받게 된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한다(롬 3: 23). 죄인인 인간의 지혜는 맹목이 되고 무한한 오류에 휩싸여 있어서 늘 하나님의 지혜와 대립되며, 인간의 의지는 악하고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혐오하고 모든 일에 무능하게 되어 미친 듯이 죄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인간의 성정(affectio)이 이렇게 부패로 인해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다.<sup>36)</sup>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절대적

35) *Inst.*, I. xv. 8, p. 381.



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한다.

## (2) 성령의 사역

갈뱅에 의하면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와 성화, 칭의와 중생 이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에 둔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요 17 : 21)라는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신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인격 안에서 중보자로 불린다는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 많은 교부들은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라고 해석을 하였다. 하나님과 하나됨은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가 되며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구성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sup>37)</sup>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 갈뱅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한다.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며 회복되어야 한다.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되고 완전한 순결한 상태로 회복하여 주는 분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신자들이 받은 살려 주는 영과 아담이 창조되었던 상태의 생명을 대조하면서(고전 15 : 45), 중생할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고 평가했지만, 중생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개조시킨다는 원칙을 제거한 것은 아니다.”<sup>38)</sup>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갈뱅은 그리스도

와의 연합의 필요성을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와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sup>39)</sup>라고 한다. 우리와 나누시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의 신비한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주시는 띠(bond)이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 성령은 우리를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구원의 약속을 알게 하시는 내적인 교사이다(엡 1 : 13).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그것은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갈뱅은 말씀을 온 누리에 비추는 태양에 비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과 같아서, 말씀이 선포된 모든 사람에게는 비치지만, 눈먼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원래 모두 눈이 멀었다. 따라서 성령이 내적 교사가 되어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들어올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스며 들어올 수 없다.”<sup>40)</sup>

믿음은 하나님의 고유한 선물이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빈 그릇으로 비유되는 신앙의 내용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하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율법 아래에서 저주 받은 인간이 구원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이다. 갈뱅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받는 이중의 은혜를 말한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소유하게 된다. 인간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성화됨으로써 흠 없고 순결한 생활을 하게 된다.<sup>41)</sup> 이것은 칭의와 성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는 전가된 외적

36) 장 갈뱅, 「갈뱅의 요리문답」, pp. 30f.

37)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art two 11-21 and *The First Epistle of John*, trans., T. H. L. Parker (Michigan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1974), p. 148.

38) *Inst.*, I, xv. 4, p. 369.

39) *Inst.*, III, i. 1, p. 9.

40) *Inst.*, III, ii. 34, p. 99.

41) *Inst.*, III, xi. 1, p. 386.

인 의(extra nos)이며 후자는 효과적인 내적인 우리 안의(in nobis) 의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는 그를 덧입고 그의 몸에 접붙여져 그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은 신비로운 연합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의 결합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갈뱅은 여기에서 믿음의 지적인 요소를 말한다.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되고 인 쳐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인 반응으로서의 지식이다. 갈뱅이 믿음에 지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복음의 회개는 죄의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음으로써 각성되고 새롭게 되어 주께로 돌아선 사람들에게서 예증된다. 구체적인 예로서 히스기야의 죽음에 직면한 기도의 응답(왕하 20 : 2 ; 사 38 : 2)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기도(욘 3 : 5, 9), 다윗의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회개의 기도(삼하 12 : 13, 16), 그리고 베드로의 회개 축구의 설교(행 2 : 37) 등이다.<sup>42)</sup>

### (3) 회개와 성화의 삶

갈뱅은 믿음으로 인한 중생을 회개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회개와 죄의 용서를 복음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눅 24 : 47 ; 행 5 : 31).<sup>43)</sup> 전자는 새로운 생활이며 후자는 값없이 얻는 화해이다. 이것들은 모두 믿음과 연관이 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믿음의 생활이란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며 자유롭게 사는 생활을 말한다.

갈뱅에게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가? 갈뱅은 회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고찰하였다.<sup>44)</sup>

첫째,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욕대로 방종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삼상 7 : 2-3) 나아갈 때 '회개했다'라고 말한다. 세례 요한과 바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였다(눅 3 : 8 ; 행 26 : 20 ; 롬 6 : 4).<sup>45)</sup> 외면적인 행위뿐 아니라 영혼 자체의 변모를 요구한다. 영혼은 그 옛 본성을 버리고 새롭게 됨에 상응하는 행위를 낳는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회개하라는 것이다(신 6 : 5 ; 10 : 12 ; 30 : 2, 6, 10 ; 겔 18 : 31 ; 렘 24 : 7).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회개가 생겨난다. 죄인이 회개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각성되어야 한다. 죄인의 마음이 회개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하며,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변명할 날이 오리라는 생각을 할 때 회개가 요청된다. 죄를 무서워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이 회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고후 7 : 10)이라고 했다. 인간의 본성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디어져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 더 세계 치지 않으시면 목석같이 둔하고 완악한 마음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 온갖 도덕과 의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워 세상의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권리와 영광을 빼앗는 가증한 것이 된다.<sup>46)</sup>

셋째로 회개는 죽임(mortification)과 살림(vivification)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sup>47)</sup> 전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능력에 의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됨으로써 죄를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며 영혼의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의에 상응하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죄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선하심

42) *Inst.*, III. iii. 4, p. 127.

43) *Inst.*, III. iii. 1, p. 119.

44) *Inst.*, III. iii. 6-8, pp. 131ff.

45) *Inst.*, III. iii. 5-6, p. 131.

46) *Inst.*, III. iii. 7, pp. 133f.

47) *Inst.*, III. iii. 3, p. 125.

과 구원을 깨닫고 죽음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을 말한다. 살린다는 것은 단지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이 아니라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요구, 즉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겠다는 것과 같다.

갈뱅이 말하는 자기부정의 삶인 죽음과 회복과 소생의 삶인 살림은 회개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성화와 중생의 양면성이다. “나는 한마디로 회개를 중생이라고 해석한다.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도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sup>48)</sup>

갈뱅이 말하는 회개는 믿음에 근거한 성령의 사역이며 중생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영혼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그 영혼에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불어넣으심으로 그의 거룩함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도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sup>49)</sup> 갈뱅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 성화라고 한다.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회개와 중생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갈뱅은 회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중생을 말하며, 여기에서 아담 안에서 상실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며 생명의 기업에 참여하도록 완전히 회복시킨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성경구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엡 4 : 23-24)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선택 받은 사람들 속에서 한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서히 그들의 부패를 씻어 버리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한 성전들로서 성별시키신다.<sup>50)</sup>

사람이 믿음에 근거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에 접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그 사람 안에서 빛난다. 신자들이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경주를 요구하신다. 갈뱅이 말하는 성화는 일회적인, 순간적인 성화가 아니라 일평생 동안 회개의 경주를 하는 것과 같은 점진적인 성화

를 말한다.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신자들은 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회개를 통해 모든 죄가 소멸되어 버리는가? 갈뱅은 중생한 사람에게도 ‘죄의 불씨’(smouldering cinder of evil)가 남아 있어서 거기에서 욕망이 끊임없이 튀어나와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자극한다고 한다.<sup>51)</sup>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의인으로 받아 주시는 것이다.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며, 그 결과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다. 의롭다 함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예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다(눅 18 : 9-14). 바리새인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으며,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 사람들로 부터 의롭다는 평판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의 행위가 옳다는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용납이며 죄의 용서이다.<sup>52)</sup>

이렇게 칭의가 믿음에 근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행위의 공로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선택된 용어이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은혜 되게 하기 위함이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칭의는 오직 믿음에게 돌려지는 것이다.

칭의는 구원을 여는 문과 같다. 칭의를 통해 인간은 구원을 확신한다. 구원

48) *Inst.*, III, iii, 9, p. 137.

49) 위의 책.

50) 위의 책.

51) 갈뱅은 어거스틴이 말한 “신자들이 세상에 살 동안 욕욕에 매어 있어 이 욕욕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부르기를 요청한다. 욕욕은 죄이지 연약함이 아니다. 어거스틴은 최초의 강한 악의 성향에 의지가 굴복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함으로써 의지의 행동이나 동기가 뒤따르는 결과론적인 죄를 말하는 듯하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펠라기우스 파와의 논쟁에서 생겨난 신학적인 반감을 두려워한 나머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자제하였다. 갈뱅은 이에 반해 인간의 욕 속에 거하는 욕망이라는 부패성을 죄라고 말한다. *Inst.*, III, iii, 12, pp. 144f.

52) *Inst.*, III, xi, 4, p. 391.

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은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의 이러한 믿음과 행위의 구원관을 수정하였다. 기독교는 가톨릭에 비해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믿음'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 그러나 믿음의 참된 개념에는 행위가 내재되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마음으로만 믿고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는 성경적 구원은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다. 그런데도 행위를 배제시킨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울은 참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한다. 참신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 있는 신앙이다. 야고보 역시 산 신앙을 말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다.

신앙생활이란 인간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 지·정·의가 변하는 전인격적이며 존재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칭의에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칭의에 뒤따르는 인간의 구원의 확신과 성화의 삶은 참된 믿음의 생활에 부수적인 것이다. 구원 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칭의로 주어지는 성화의 삶에서 거룩한 삶, 구분된 삶, 말씀대로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본질이 높아서가 아니다. 성화의 정도는 성령께 얼마나 순종하면서 사느냐에 달려 있다. 성화는 우리의 본성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다.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의 전적인 지배와 다스림에 자신의 지·정·의를 맡기는 것이다. 나의 전 존재가 온전히 성령님께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화의 완성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완성까지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갈뱅은 성만찬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적(sign)으로 이해하였다. 성만찬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징과 확증을 가져온다.

성만찬은 성령의 사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 영적인 삶에 유의한 체험과 양육이 된다.

## 결 언

인간 스스로의 물음에 대한 답은 지금도 미지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묻고 대답해야 하는 모순 때문이다. 성경은 이에 대한 답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사람 아담인 인간은 전인적으로 하나님과 일상적인 교제를 하였으며 영적으로도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보인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충분한 의를 가진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창 1:26-27)이었다. 갈뱅에 의하면 인간의 창조는 세 개의 단계 과정을 갖는다. 그의 몸이 땅의 먼지로 형성되고 거기에 활기를 갖는 영이 부어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 위에 영원성을 갖는 하나님의 형상을 각인시켜 주셨다. 갈뱅은 인간 본성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기 전에 먼저 흠과 진흙(창 2:7, 8:27)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흠집에 사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모습)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 갈뱅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영혼과 관련된 완전성이라고 본다. 그 완전성은 천사들과 같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 갈뱅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한다.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새롭게 됨(골 3:10)과 순결한 의, 그리고 거룩함이다(엡 4:24).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고후 3:18). 갈뱅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지 어떠한

인간 내부의 가능성에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이를 이신칭의라 하며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통해 그의 의가 믿음에 의해 우리의 의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칼뱅이 말하는 의란 질적인 의가 아니라 관계의 의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비를 통해 베푸시는 것이다. 칼뱅은 믿음으로 인한 중생을 회개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회개와 죄의 용서를 복음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눅 24:47; 행 5:31).

칼뱅은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가, 회개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회개란 인간의 옛 본성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때 생긴다. 그리고 회개는 죽임(mortification)과 살림(vivification)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칼뱅이 말하는 회개는 믿음에 근거한 성령의 사역이며 중생이라고 해석한다.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신자들은 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중생한 사람에게도 '죄의 불씨'(smouldering cinder of evil)가 남아 있어서 거기에서 욕망이 끊임없이 뛰쳐나와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자극한다고 한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의인으로 받아 주시는 것이다.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라고 볼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는 성경적 구원은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중의 은혜를 소유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흠 없고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전자를 칼뱅은 칭의와 죄의 용서라고 하고, 후자를 중생과 성화라고 한다. 회개를 통해 중생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룩의 과정을 성화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성화는 중생 그리고 회개의 생활이라고 보인다. 그에게 있어서 성화와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합일에서 일어나는 동시적인 은혜이다.

창조 시에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인 인간이 사단의 꾀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

이며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칼뱅이 말하는 죄는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시작된 인간 본성의 죄악이다. 이것은 불씨로 남아 모든 인간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자연인인 인간 본성이다. 자연인인 인간 본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2~3가지의 다양한 모습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형상과 모양을 문자적으로 구별하여 모양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으나 형상은 남아 있다는 이론이 있다. 여기에 대해 종교개혁자들과 칼뱅은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근거로 히브리어의 강조법 가운데 다른 언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서술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칼뱅에게서는 형상과 모양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칼뱅의 형상의 존재와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4-25)를 해석해 보면 한 인간 속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와 원죄의 본성이 불씨로 남아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을 통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수영, 「개혁신학과 경건」(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_\_\_\_\_, “칼뱅의 인간론.” 「빛과 소금」(서울: 두란노, 1985, 5).  
 \_\_\_\_\_, “인간론.” 「교리 교육지침서」(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_\_\_\_\_, “칼뱅신학의 특징과 한국신학.” 한국성서학연구소 편, 「한국적 신학의 모색」, 성서학 연구소 연구위원 논집(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5).  
 장 칼뱅, 「칼뱅의 요리문답」(서울: 도서출판 경건, 2010).  
 이오갑, “인간론.” 「칼뱅신학해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3).
- André Biéler.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 「갈뱅의 사회적 휴머니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 김선희. “갈뱅의 인간론: 「기독교강요」(1559)를 중심으로.” 「갈뱅연구 제4집」(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 김요셉. “갈뱅 인간론에서 신자의 정체성 이해와 그 신학적 의미”(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 갈뱅. 「영한 기독교강요」(서울: 성문, 1993).
- 디트리히 본회퍼. 「저항과 복종」(*Widerstand und Ergebung*), 「옥중서간」, 손규태, 정지연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한스 발터 볼프.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신학총서 제10권/역사신학 구약 편 No. 4. 분도출판사, 1976.
-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서울: 연세대출판부, 1986).
- 배경식. “칼빈의 참된 계시의 신학.” 「칼빈신학 해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_\_\_\_\_. 「창조와 신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에드인 팔머. 박일만 역. 「칼빈주의 5대 교리」(서울: 성광출판사, 1991).
- J. 몰트만.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 J. L. 니이브. 서남동 역. 「기독교교리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 Calvin. *Old Testament Commentaries, Genesis Vol. I*(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73).
-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 trans. by R. Mackenzie(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73).
-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art One 1-10*, trans. by T. H. L. Parker(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73).
-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trans. John W. Fraster(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1973).
-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art two 11-21 and *The First Epistle of John*, trans. T. H. L. Parker(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1974).

J. Moltmann. *Mensch*, *Christliche Anthropologie in den Konflikten der Gegenwart*. Themen der Theologie, hrsg. von H. J. Schultz, Bd. 11.

### 【한글초록】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 자신에 관한 물음으로 귀결된다. 갈뱅은 인간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하며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본성으로서의 자연적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좋은 품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죄악에 빠져 부패한 인간을 말한다.

자연적 인간 본성에 관한 종교개혁 이전의 인문주의자들과 갈뱅의 차이는 현저하게 다르다.

이 두 인간 이해의 근본적인 차이들은 갈뱅이 어디까지나 성경의 증거에 의존하면서 자연적 인간의 어둡고 비참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데 반해, 인문주의자는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범죄와 그 결과를 고양시키는 데 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보인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충분한 의를 가진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존재에 관해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구절은 창세기 1:26~27이다.

갈뱅은 인간에게 아담의 죄로 인해 본래 받은 것을 상실하고 전 인류의 파멸이 초래되었다고 본다.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은사는 박탈당하고 자연적 은사는 부패되었으나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이성만 남아 있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라고 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중의 은혜를 소유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흠 없고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 || 주제어 ||

자연인, 본성,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와의 연합, 회개, 성화, 죽임(mortification), 살림(vivification),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 【Abstract】

One question, 'What is a human being?' naturally follows the question of 'Who am I?' Calvin says that a human being is created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 and therefore implies a spiri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being and God.

The natural man as a human being does not retain the good character given by God in Creation. He says that the destroyed human being is caused by Adam not obeying the order of God.

A large gap regarding the nature of the natural human being exists between humanists before the religious revolution and Calvin.

The essential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as follows. Calvin's view depends on the Bible and sees directly the reality of human beings as dark and miserable. On the contrary the humanists enhanced the sins and the results of Adam.

The first man, Adam, shown in the creation as created in the Imago Dei, has enough righteousness for communication with God and is purely, holy, absolute being. The concrete phrase describing the human being as the

Imago Dei, is Genesis 1 : 26~27.

Calvin understood that human beings have lost the original givenness of things and caused the destruction of all mankind : supernatural gifts destroyed ; natural gifts corrupted ; but enough of reason remains to distinguish man from brute beasts.

The grace of Atonement is necessary for human beings. We call it unity with Christ.

The believers possess double grace through unity with Christ. They accompany the Judge, God as a father by reconciliation and make an undefiled and pure living by the Spirit of Jesus Christ.